

삼성전자, 복제약에 5000억원 투자

대규모 설비투자 통해 원가경쟁력 확보 ... 2011년 신제품 출시 목표

삼성전자는 바이오 복제약 분야에 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7월15일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바이오 복제약(바이오시밀러) 분야 선정기업 협약 체결식에서 “삼성전자가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한승 삼성전자 전무는 “전문가들로부터 복제약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대규모 생산 설비를 통한 원가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들었다”며 대규모 설비투자를 암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한승 전무는 삼성전자가 생산설비 확충을 위해 중견 바이오기업의 인수합병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최창훈 이수앱지스 사장은 “삼성과 함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개발해 오는 2011년에 첫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수앱지스, 프로셀제약, 제넥신 3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허가 만료되는 9종 이상의 바이오 복제약의 대량 공급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7/15>